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주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 차이 연구

이 기 학[†] 송 현 정 임 희 경 전 윤 경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주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성차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대학의 대학생 228명에게 분리개별화, 자기주장성, 진로태도성숙 척도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독립 변인의 차이 검증 연구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분리개별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주장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변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분리개별화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여 분리개별화가 높은 집단이 분리개별화가 낮은 집단보다 더 높은 진로태도성숙도를 보였다. 그러나 자기주장성과 성별의 주효과는 각각 유의미하지 않았다.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태도성숙 하위요인에 따른 분석 결과 목적성, 확신성 차원에서는 분리개별화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준비성 차원에서는 자기주장성의 주효과가 있었으며, 독립성 차원에서는 성별 주효과가 나타났다.

주요어 : 심리적 독립, 분리개별화, 자기주장성, 진로태도성숙, 성차

[†] 교신저자 : 이 기 학,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전화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현대 사회는 거대화, 다양화, 고속화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가치관의 변화, 직업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 대학생들은 직업 선택 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충국, 1999). 이기학과 한종철(1997)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진로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학생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도 연세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신입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진로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도와 일관되게 신입생들은 학생상담소에서 가장 받고 싶은 심리검사는 적성검사라고 응답하였으며, 동시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진로결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다(한광희, 최송미, 양은주, 2001).

Pavlak(1981)에 의하면 진로는 인생 전반에 걸쳐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주요한 지위로, 어느 한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갖기 이전부터 은퇴 후까지도 발달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개념이다.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는 진로 발달의 과정에는 각 연령에 해당하는 진로 발달의 다섯 단계와 각각의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이 존재한다. 그런데 진로 발달 과정과 해당 단계의 발달 과업을 다루는 태도와 행동에는 개인차가 존재하고, 이러한 개인차를 기술하고 평가하기 위해 진로성숙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진로성숙은 개인이 다루는 진로 발달과업의 본질뿐만 아니라 어떤 발달 단계의 과업을 다루는데 있어 개인이 보여주는 태도와도 관련된다. Fouad(1988)에 따르면, 전 생애 발달 과정상 적절한 진로 발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 개인

의 진로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성숙되어져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Ginzberg, Ginsberg, Axelrad와 Herma(1951), Super(1957)에 의해 여성에 대한 진로발달 연구가 제기되면서 남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정도의 차이도 비교되기 시작하였다. Ginzberg(1951) 등의 진로태도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진로태도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Crites의 진로 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중고생의 남녀에 대한 진로 성숙정도를 살펴본 이기학(1992)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학과 한종철(1997)의 고등학생의 성별 및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 정도 연구 역시 여학생이 더 높은 진로태도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현실성, 준비성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은 결정성 차원에서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진로 발달에서 근본적이고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서 가족의 역할은 몇몇 진로 발달 및 선택 이론(Super, 1957)에서 강조되어 왔다. Kenny와 Rice(1995)는 특히 가족관계 중에서도 가장 가까워서 영향을 주는 부모와의 관계, 즉 부모로부터의 독립 정도가 청소년 또는 초기 성인기의 삶과 직업적 탐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초점을 두었다(송영주, 2001; 재인용). Zingaro(1983) 역시 진로 선택 과정에서 어려움을 나타낸 청소년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간 융합 정도가 높고 미분화된 자아를 지니고 있다고 제시하였다(맹영임, 2002).

Blos(1967)는 청소년이 유아의 심리적 분리와 유사한 과정을 경험하고, 이 과정이 성공적인가에 따라 건강하게 발달한다고 보았다. 즉,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희영(1999)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과 진로 성숙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심리적 분리와 진로 성숙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였다. 또한 이충국(1999)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독립이 높은 집단이 진로태도성숙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독립에 있어 성차 연구는 Chodorow (1989), Gilligan(1982)과 같은 여성주의 심리학자들의 이론적 공헌으로 촉진되었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Lopez, Cambell과 Watkins (1986)는 남자가 더 독립적, 자율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Gavazzi와 Sabatelli (199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남자들이 여자보다 기능적, 정서적 독립성을 경험하며, 더 높은 수준의 재정적, 심리적 독립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성(200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독립성이 높았다. 그 외 많은 연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부모와 정서적으로 더 연결되어 있으며, 부모 갈등에 민감하고, 의존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Bernstein, 1991; Frank, Avery, & Laman, 1988; Hoffman & Weiss, 1987; Lopez et al., 1986). 그러나,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후기 청소년기의 남녀 모두 부모로부터 독립성, 자율성보다는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 민감하게 고려하였다(Frank, Pirsch, & Wright, 1990; Hauser & Levine, 1993). 또한, Rice(1992)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성차가 없음을 보고하였고, Bray와 Harvey (1992)도 남녀가 유사한 경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Gnaulati & Heine, 2001).

자기주장성이란 사회적으로 용인된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Wolpe와 Lazarus, 1966).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기주장성이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통해 진로 태도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wart(1994)는 자아개념이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심리적 독립 또한 자아개념을 중재로 하여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Tokar, Hall, & Moradi, 2003),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주장성은 정적인 상관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olor, Kelly, & Stebbins, 1976).

자기주장성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진로태도 성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자신이 얻기 어려운 직업을 선택할수록 자기주장성이 많이 요구된다(Basow, 1980). 게다가 여성은 더 수동적이고 덜 주장적인 전통적 성역할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자기주장성이 남성보다 더욱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Tolor et al., 1976). 그러므로 여성의 경우 자기주장성이 높을수록 동등한 수준의 자기주장성을 가진 남성보다 비전통적인 진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다(Nevill & Schleckler, 1988). 이 때 자기주장성은 전통적 성역할과 불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등의 직업 관련 행동의 중요한 변인이 된다(Osborn & Harris, 1975).

기존의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심리적 독립을 가진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Bernstein, 1991; Frank et al., 1988; Hoffman & Weiss, 1987; Lopez et al., 1986). 심리적으로 잘 분리되지 않은 개인이 진로 선택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또한 이전 연구들에 나타나 있다(맹영임, 2002). 그러나 진로태도 성숙도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진로태도 성숙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학, 1992; 이기학, 한종철, 1997). 주로 남성이 심

리적 독립이 높고, 여성이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와 심리적 독립이 잘된 사람일수록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이충국, 1999; 이희영, 1999)간에는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다. 심리적 독립이 잘된 사람일수록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은 것이라면 남성의 진로태도 성숙도가 더 높아야 하나 연구 결과들에서는 여성이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더 높은 진로태도 성숙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된 결과를 보이는 이유로 자기주장성의 역할을 제기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심리적 독립 수준이 낮은 여성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확신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장성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이 보다 높은 자기주장성을 가지게 된다면 심리적 독립 수준이 남성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진로태도 성숙도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기주장성이 여러 경로를 통해 진로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주장성과 진로태도 성숙도의 직접적인 관계는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자기주장성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진로태도 성숙에 관련된 변인이나 개념들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진로 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여 진로 선택으로 고민하는 개인, 특히 자기주장성이 더 필요할 것이라 여겨지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우선 진로태도 성숙도에서 남녀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후 심리적 독립과 진로태도 성숙도, 자기주장성과 진로태도 성숙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전의 연구 결과들에서 나온 상반된 결과들

을 검토해 보고, 진로 문제를 다룰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변인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성이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자기주장성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성별, 심리적 독립 및 자기주장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Y 대학에서 심리학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재학생 250명(남 144명, 여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설문에 응한 22명의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228명(남 131명, 여 97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0.65세(표준편차 2.23)였다.

측정도구

우리나라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주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남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심리적 독립, 자기주장성, 진로태도성숙을 측정하였다.

심리적 독립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기 위해 장근영과 윤진(1992)이 번안한 Levine, Green, & Million(1986)이 개발한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척도(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SITA)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전체 80문항으로 8개의 하위척도(합입불안, 자기몰입, 분리불안, 건장한 독립, 거부기대, 의존부정, 공생관계, 친구와의 결속)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고자 총점을 이용하였다. 높은 총점은 분리 개별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다. 장근영과 윤진(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관성 계수는 .83이고 김인경(1993)의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가 .84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 범위는 .53-.86이었다.

자기주장성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Rathus(1973)가 개발하고, 공지은(2003)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주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주장성 척도는 전체 30문항의 단일척도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더 주장적이라고 평가되었다. 공지은(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주장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 계수가 .70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 측정도구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 성숙 측정 도구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총점은 진로태도가 더 성숙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자신이 선택하려고 의도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가를 알아보는 10개의 결정성 문항, 현명한 진로 선택에

필요한 진로 정보 수집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의 수준을 알아보는 10개의 준비성 문항, 자신의 진로 결정에 있어 어느 정도 주체성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9개의 독립성 문항, 진로선택을 통한 가치 추구 및 내재적 욕구와 현실적 타협 정도를 알아보는 8개의 목적성 문항, 마지막으로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정도를 알아보는 10개의 확신성 문항으로 총 5개 하위 영역의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보고한 전체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5였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관성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 일관성 계수는 각각 결정성 .90, 목적성 .84, 확신성 .67, 준비성 .82, 독립성 .79로 나타났다.

절차

연구자는 2004년 5월에 심리적 독립 척도, 자기주장성 척도, 진로태도 성숙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를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배부하고 본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 후 질문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소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분석방법

통계처리는 SPSSWIN(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 for WINDOWS) 프로그램(Ver 12.0)을 이용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t-test, 다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의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표 1), 심리적 독립과 진로태

표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리개별화	자기주장성	진로태도성숙
분리개별화	-		
자기주장성	-.420**	-	
진로태도성숙	-.345**	.096	-

** $p < .01$

도 성숙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왔다. 즉, 심리적 독립이 잘될수록 자기주장성과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았다. 자기주장성과 진로태도 성숙도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편, 심리적 독립과 자기주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 변인별 남녀 차이를 알아본 결과, 심리적 독립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_{(226)} = -3.244, p < .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심리적 독립이 잘 되어 있었다. 진로태도성숙 총점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에서는 독립성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

났다, $t_{(226)} = 2.730, p < .01$.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독립성 차원에서의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았다(표 2).

각 변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통계 분석을 위해 중앙치 분리법을 이용하여 각각 심리적 독립(중앙치 = 190.50)와 자기주장성(중앙치 = 90.00) 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각 집단의 범위와 남녀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성 × 심리적 독립 × 자기주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석

표 2. 분리개별화, 자기주장성, 진로태도성숙에서의 성차

	남자		여자		t
	M	SD	M	SD	
분리개별화	188.71	18.84	197.46	21.79	-3.244***
자기주장성	89.78	9.56	89.20	10.19	.442
진로태도성숙	162.31	19.42	160.37	17.08	.782
결정성	32.01	7.90	32.10	8.52	-.087
목적성	26.50	5.71	26.24	5.60	.352
확신성	32.61	4.90	32.22	4.92	.599
준비성	36.74	5.68	37.18	5.93	-.561
독립성	34.44	4.76	32.64	5.15	2.730*

* $p < .05$, *** $p < .001$

표 3. 분리개별화와 자기주장성의 남녀 평균 및 표준편차 (단위 : 점)

	범위	남학생		여학생		
		M	SD	M	SD	
분리개별화	상	138 - 190	176.42	11.20	177.24	11.34
	하	191 - 267	205.69	13.20	210.49	16.22
자기주장성	상	91 - 123	97.19	5.81	96.96	5.25
	하	60 - 90	82.91	6.83	81.59	7.84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 2는 지지되어 심리적 독립은 진로태도 성숙도에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_{(1, 210)} = 8.477, p < .01$. 즉,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은 집단($M = 165.35, SD = 17.38$)은 심리적 독립 수준이 낮은 집단($M = 157.61, SD = 18.74$)보다 진로태도 성숙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성과 자기주장성의 주효과 및 각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각각의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점수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한편 진로태도성숙 하위요인별로 심리적 독립, 자기주장성, 성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개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각각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하위요인별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본 결과, 결정성 하위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목적성 하위요인에서는 심리적 독립의 주효과가 발견되었다, $F_{(1, 210)} = 7.388, p < .01$. 즉,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은 집단($M = 27.68, SD = 5.34$)이 심리적 독립 수준이 낮은 집단($M = 25.11, SD = 5.69$)보다 목적성 차원에서의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았다. 확신성 하위요인에도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은 집단($M = 33.39, SD = 4.94$)이 심리적 독립 수준이 낮은 집단($M = 31.50, SD = 4.71$)보다 진로태도 성숙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F_{(1, 210)} = 6.815, p < .01$. 준비성

하위요인에서는 자기주장성의 주효과가 있었다, $F_{(1, 210)} = 19.089, p < .001$. 자기주장성이 낮은 집단($M = 38.25, SD = 5.49$)이 자기주장성이 높은 집단($M = 35.53, SD = 5.77$)보다 준비성 진로태도성숙 점수가 높았다. 독립성 하위요인에서는 앞서 제시한 t검증의 결과에서처럼 성별 주효과가 나타났다, $F_{(1, 210)} = 7.710, p < .01$; $F_{(1, 210)} = 7.786, p < .01$. 즉, 남학생($M = 34.44, SD = 4.76$)이 여학생($M = 32.64, SD = 5.15$)보다 더 높은 독립성 진로태도성숙 점수를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주장성이 성별에 따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이 심리적 독립과 자기주장성에 미치는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과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심리적 독립, 자기주장성, 성별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설 2가 지지되었으며, 나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각각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예상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들 (Ginzberg et al., 1951; O'Hara, 1962; 이기학, 한종철, 1997) 중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진로태도성숙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진로태도 성숙도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진로태도 성숙도 전체로 비교했을 때는 성차이가 별로 없었으나, 하위 요인을 비교했을 때는 성차이가 있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Lee, 2001)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진로태도 성숙의 하위 요인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진로태도 성숙 하위요인에서는 독립성 하위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서 보듯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심리적 독립을 획득하는 발달상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박완성, 2002). 그러나 준비성 하위요인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해 이해하고 계획하는데 있어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전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Lee, 2001). 즉, 전체 진로태도 성숙도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태도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성숙해진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발달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충국, 1999; 이희영, 1999)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심리적으로 독립한 개인일수록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진로태도성숙 하위차원인 목적성, 확신성에서 심리적으로

로 더 독립한 집단이 높은 진로태도 성숙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태도 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진로태도 성숙의 중요 변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가설 3에서 제시한 진로태도 성숙도에 대한 자기주장성의 주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Basow (1980)에 의하면 자기주장성은 자신이 얻기 어려운 직업을 선택할수록 더 많이 요구된다. 그런데 본 연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상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집단은 진로 고려 시 상대적으로 직업 선택의 제약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특성 또한 자기주장성의 주효과를 상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각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 또한 기각되었다. 심리적 독립을 제외한 자기주장성, 성별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변인간의 상호작용도 없었다. 이는 진로태도 성숙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변인이 심리적 독립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심리적 독립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주요 영향 변인은 없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진로태도 성숙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자기주장성의 효과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심리적 독립만이 진로태도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상과는 다르게 성과 자기주장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심리적 독립이 강하게 진로태도 성숙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며, 청소년기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성별의 경우는 진로태도 성숙 전체에서는 별

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 차원에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진로태도 성숙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를 성숙과 미성숙의 단일 잣대로 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태도의 각각 다른 부분이 이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다는 다차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자기주장성의 경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논의했듯이 상위권 대학의 집단으로 구성된 피험자의 특성일 수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여성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직업 가치관이나 성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직업행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주장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고려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이 서울 지역 1개 대학의 학생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연령과 지역의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청소년과 타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 성숙과 관련되는 많은 변인들 중 심리적 독립과 자기주장성만을 선택하여 남녀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미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심리적 독립과 자기주장성은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통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Stewart, 1994; Tokar et al., 2003; Tolor et al., 1976). 그러므로 자아개념 변인을 추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 성숙과 관련하여 내담자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심리적 독립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진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증가시켜 효과적인 개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남녀의 전반적인 진로태도 성숙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하위차원에서는 더 성숙하거나 미흡한 부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한다면 성별에 맞게 선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나 가정에서도 청소년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돕는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공지은 (2003). 자기주장성이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경 (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맹영임 (2002).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수준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한국진로교육학회지, 15, 85-102.
- 박완성 (200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정체감, 진로 결정 수준과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14, 103-123.
- 박찬주 (199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영주 (2001). 분리개별화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불안, 자아 정체감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충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1992). 개인적 특성이 직업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학, 한중철 (1997). 고등학생의 성별 및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정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

- 335-349.
- 이충국 (1999). 진로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심리 사회적 발달과 심리적 독립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희영 (199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 관계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 239-259.
- 장근영, 윤진 (1992). 분리개별화 과정 및 역할 취득 수준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 157-176.
- 한광희, 최송미, 양은주 (2001). 신입생의 진로의식에 대한 태도 연구. 연세상담연구, 17, 3-18.
- Basow, S. A. (1980). *Sex-role stereotypes, traditional and alternatives*. Monterey, CA: Brooks/Cole.
- Bernstein B. L. (1991). Central issue importance as a function of gender and ethnicity. *Current Psychology Research and Reviews*, 10, 241-252.
- Blos, P.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2, 162-186.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Chodorow, N. (1989).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Fouad, N. A. (1988). The construct of career mat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49-59.
- Frank, S., Avery, C., & Laman, M. (1988). Young adul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Individual differences in connectedness, competence, and emotional autonomy, *Developmental Psychology*, 24, 729-737.
- Frank, S. J., Pirsch, L. A., & Wright, V. C. (1990). Late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Relationships among deidealization, autonomy, relatedness, and insecurity and implications for adolescent adjustment and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571-588.
- Gavazzi, S. M., & Sabatelli, R. M. (1990). Family systems dynamics, the individuation process,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 500-519.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nzberg, E., Ginsberg, S. W., Axelrad, S., & Herman, J. R.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noulati, E., & Heine, B. J. (2001). Separation-Individuation in late adolescence: An investigation of gender and ethnic differences, *Journal of Psychology*, 135, 59-70.
- Hauser, S. T., & Levine, H. A. (1993). Relatedness and autonomy in adolescence: Links with ego development and family interactions. *Adolescent Psychiatry*, 19, 185-227.
-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 157-163.
- Lee, K. H. (2001). A cross-cultural study of the career maturity of Korean and United States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8, 43-57.

- Lee, H. Y., & Hughey, K. F. (2001).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maturity of college freshmen from intact familie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 279-293.
- Levin, J. B., Green, C. J., & Millon, T. (1986).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of adolescence within a clinical popul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 492-507.
- Lopez, F. G., Cambell, V. I., & Watkins, C. E. (1986). Depressio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n investigation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52-56.
- McDermott, J. F., Robillsrd, A. B., Char, W. F., Hsu, J., Tseng, W. S., & Ashton, G. C. (1983). Reexamining the concept of adolescence: Differences between adolescent boys and girls in the context of their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1318-1322.
- Nevill, D. D., & Schelecker, D. I. (1988). The relation of self-efficacy and assertiveness to willingness to engage in traditional/nontraditional career activiti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 91-98.
- O'Hara, R. P. (1962). The roots of careers, *Elementary School Journal, 62*, 277-280.
- Onyeizugbo, E. U. (2003). Effects of gender, age, and education on assertiveness in an nogerian samp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7*, 12-16.
- Osborn, S. M., & Harris, G. G. (1975). *Assertive training for women*,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Pavlak, M. F. (1981). *Student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vocational attitude maturity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Rathus, S. A.(1973). Instigation of assertive behavior through videotape-mediated assertive models and directed practice.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11*, 57-65.
- Rice, K. G. (1992). Separation- individu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95-202.
- Stewart, J. (1994). Counseling individuals who experience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Guidance & Counseling, 9*, 11-14.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New York: Harper and Row.
- Tokar, D. M., Hall, R. J., & Moradi, B.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17-19.
- Tolor, A., Kelly, B. R., & Stebbins, C. A. (1976). Assertiveness, sex-role stereotyping, and self-concept. *The Journal of Psychology, 93*, 157-164.
- Wolpe, J., & Lazarus, A. A. (1966). *Behavior therapy techniques*. Oxford, Eng.: Pergamon.
- Zingaro, J. C. (1983). A family systems approach for the career counselor.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 24-27.

A Study on Gender Difference of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Independency from Parents and Self-Assertivenes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Ki-Hak Lee Hyeon-Jeong Song Hee-Kyung Lim Yoon-Kyung Jeo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independency, self-assertivenes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The study involved 228 participants(131 males and 97 females) who were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that measured separation individuation, self-assertiven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Separation individuation was used to obtain a measured psychological independency from parent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main effects of psychological independency on career attitude maturity. However, main effects of self-assertiveness and gender were not found. There was no interaction of each variable. Subfactor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were also examined. Among these results,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on independence subfactor.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psychological independency influence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significantly. The implications of gender differe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proposed.

key words : psychological independency, separation individuation, self-assertiveness, career attitude maturity, gender difference

부록 1. 남녀별로 본 분리개별화와 자기주장성 수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점수

			남학생		여학생	
			M	SD	M	SD
총점	분리개별화	상	165.03	18.26	166.00	15.68
		하	158.55	20.85	156.75	17.09
	자기주장성	상	164.75	18.26	167.71	15.53
		하	160.04	20.30	160.04	19.54
결정성	분리개별화	상	31.71	7.82	34.24	7.77
		하	32.42	8.06	30.73	8.76
	자기주장성	상	32.94	7.57	33.08	7.07
		하	31.15	8.16	31.14	9.71
목적성	분리개별화	상	27.59	5.72	27.84	4.55
		하	25.00	5.39	25.20	6.00
	자기주장성	상	27.27	4.66	27.48	3.99
		하	25.79	6.49	25.02	6.64
확신성	분리개별화	상	33.12	5.06	33.92	4.70
		하	31.91	4.63	31.12	4.79
	자기주장성	상	34.00	4.50	32.56	4.30
		하	31.32	4.94	31.88	5.49
준비성	분리개별화	상	37.54	5.43	37.29	5.49
		하	35.64	5.88	37.10	6.24
	자기주장성	상	36.00	6.04	34.92	5.40
		하	37.43	5.27	39.39	5.63
독립성	분리개별화	상	35.07	4.32	32.71	4.45
		하	33.58	5.24	32.59	5.59
	자기주장성	상	34.54	4.78	32.67	3.86
		하	34.35	4.79	32.61	6.21